

Issue Comment

- ✓ LNG 캐리어 운임이 \$140,000/day로 하락 전환함
- ✓ 조선사들은 LNG 캐리어 수주를 지속하고 있음
- ✓ 운임 강세는 내년 초까지의 발주 모멘텀을 유지시킬 것

LNG 캐리어 운임은 하락 전환하지만 발주 모멘텀은 살아있다

지난 LNG Update 에서 LNG 가격이 백워드이션 시장에 진입함에 따라 카고 하역량이 늘고 스팟 선대 공급이 늘어나 운임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런데 최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NG 캐리어 운임이 하락 전환했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번 주 월요일에 4 척의 선박이 open charter 로 풀렸고, 이번 달에 10 척 가량이 추가적으로 open 으로 풀리게 된다. CNOOC 와 Trafigura 도 charter offer 를 한 상황이다. 이에 지난 화요일에 \$140,000/day 수준까지 운임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소식이다.

운임 하락은 조선사에게는 악재다. 하지만 지난 주 현대중공업에 이어 이번 주 대우조선해양이 LNG 캐리어 수주 소식을 알렸고, 현대미포조선 마저 중 소형 LNG 캐리어 수주 낭보를 전했다. 확실히 운임이 오르는 구간에 접어들면 발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 겨울에도 운임이 강세를 보인 뒤에 1 월부터 운임 자체는 하락하지만 3 월까지 대량의 LNG 캐리어가 발주됐다. 이번 겨울도 운임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현재 운임이 하락 전환한다고 해도 상반기 LNG 캐리어 발주 모멘텀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그리고 아직 운임의 절대 레벨도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때 발주 모멘텀을 꺾을 정도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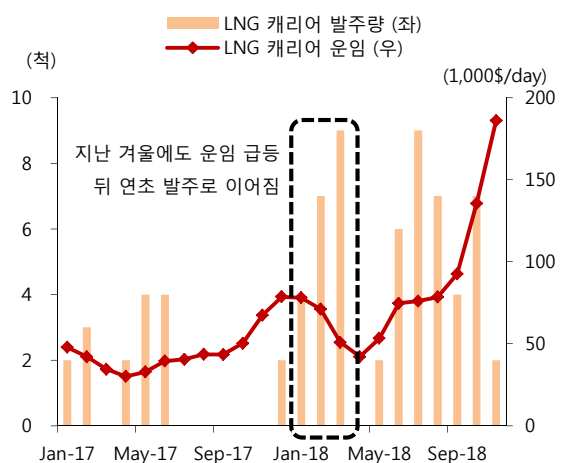
운임 하락 조짐을 보이는 LNG 캐리어

Rising ship supply helps ease LNG charter rates

Inflated spot charter rates for liquefied natural gas (LNG) tankers are easing as more ships becoming available, which could help increase LNG trade if Asian demand rises in coming months...(중략)...Not many spot Atlantic cargoes have traveled east in recent months due to inflated shipping rates...(중략)...But as more vessels become available for spot charters, rates have dropped to around \$160,000 per day at the end of November, shipbrokers told Reuters. One source said the spot rate for a modern vessel reached \$140,000 per day on Tuesday. (하략)

자료 : Reuters(2018-12-04), SK 증권

운임 급등 뒤 발주로 이어지는 패턴임



자료 : Clarkson Research,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자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 단계 (6 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